

教養名著 選定制度

— 綜合大學校를 中心으로 —

邊 宇 烈*

目 次

I. 緒 論

1. 研究의 目的
2. 研究의 方法
3. 研究의 限界

II. 理論的 背景

1. 大學教育에 있어서 教養教育
2. 教養教育과 教養名著 選定 制度

III. 結果解釋 및 考察

1. 教養名著 選定制度
2. 教養名著目錄
3. 教養名著 選定制度에 대한 意見

IV. 要約 및 結論

I. 緒 論

1. 研究의 目的

大學은 國家와 人類社會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範하고 精緻한 應用方法을 教授研究하는 同時에 豊富한 指導의 人格을 陶冶하는 것을 教育 目的으로 하고 있다.¹⁾ 즉 大學은 學問과 眞理를 탐구하고 專門的 知識을 傳達하는 專門的인 面과 人格陶冶를 위한 教養的인 面을 가진다.

그러나 오늘의 大學은 그 目的과 機能이 多樣하고 巨大한 機構로 변해 왔다. 오늘의 大學은 規模에 있어서만 커다란 變化를 한 것이 아니라 그 理念에 있어서도 많은 變化를 가져 왔다.

* 公州師範大學 圖書館教育科 專任講師.

1) 教育法, 第 108條 參照.

2 도서관학논집

大學教育은 社會의 知性的 風潮를 일으키고, 公共精神을 함양하며, 國民精神을 淨化하고, 大衆의 熱望에 대하여 확고한 目的을 提示하며, 時代의 理念을 正 化하고 私生活의 人間關係를 세련되게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이 와 더불어 오늘의 大學은 實用的 知識과 問題解決의 추구에 獻身하는 기관으로 變 化해 가고 있다. 大學은 계속 변화되어 심오한 思想과 영원한 眞理를 탐구하는 곳이 아니라 實用的 知識만을 추구하고 專門化된 職業이 要求하는 技能을 습득하 는 곳으로 變質되어 가고 있다. 특히 오늘의 技術文明과 産業社會는 大學教育의 이러한 傾向에 拍車를 가하고 있다.

오늘의 大學은 人文知識을 부여하고 古典을 통해서 영원한 眞理를 가르치며 순 수한 自然科學의 眞理를 研究하는데 專念했던 傳統의 大學으로 부터 專門職에 必 要한 特殊한 實用的 知識과 技能만을 가르치는 大學으로 變化하였다. 이러한 變 化는 職業의 專門化로 인하여 專門의 知識과 機能을 要求하게 된 現代産業社會가 가져온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大學教育이 技能教育和 專門職 教育에만 치중한다면 그러한 專門的 知 識과 機能을 道具로서 使用하는 主體인 人格의 教育 혹은 人間教育을 소홀히 하 거나 忘却하기가 쉽다. 즉 生의 理念과 價値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理念과 價値觀이 결여된 知識과 技術은 얼마든지 誤用되고 惡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大學은 人文教育에 重點을 두는 傳統의 大學教 育이 추구했던 人間教育和 産業社會의 大學教育이 置重하는 技能教育의 調和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²⁾

이러한 觀點에서 보다 폭 넓은 人格教育和 專門人으로서 갖추어야 할 一般教 養의 基礎를 구축하기 위하여 專門書籍 뿐만이 아니라 教養圖書에 관한 讀書를 하는 것은 知的, 情緒的, 社會的 성숙의 完成을 이루는 大學時節에 있어서 必須 的인 要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情報의 洪水現象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出版物가운데서 良書를 選擇 한다면, 目標 및 目的을 통한 系統있는 讀書를 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讀書의 第一의 必要條件은 選擇이며 適切한 選擇이 없이 興味本 位나 流行을 쫓아서 되는데로 읽는다면 차라리 읽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³⁾

2) 金致善, “大學의 理念과 主人意識”, 大學教育, 제 22호(1986.7), pp.6-7.

3) 鄭驥謨, “圖書館人이 본 大學生과 讀書”, 도립원보, 제 6권, 제 8호(1965. 10), p.8.

즉 知的 欲求를 多方面으로 充足시켜야 할 時期에 局限되고 편과적인 讀書는 知的 절름발이로 만들 우려가 있으며, 지나친 目的意識을 가진 讀書도 讀書의 순수한 興味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⁴⁾ 그러므로 各 大學은 體系的인 讀書指導의 必要性을 느끼고 또 學生들의 讀書計劃에 도움을 주고자 敎養圖書, 敎養百選, 名著解題 等の 目錄을 準備하고 있다.

따라서 本 研究는 敎養名著選定에 어떤 確固한 基準은 提示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各 大學의 敎養名著目錄을 모아 分析하고 檢討하여 앞으로 敎養名著를 選定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研究의 方法

① 道 具

本 研究를 위한 資料의 蒐集方法은 質問紙法을 使用하였는데, 質問紙는 全體 問項數가 14 個로 敎養名著制度의 實施與否, 名稱, 實施年度, 形態, 更新, 選定, 複本, 利用 等으로 構成되어 있다.

② 調查對象, 時期 및 回收率

敎養名著 選定制度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豫想되는 46 個 綜合大學校를 對象으로 1986年 7月 10日에서 10月 15日에 걸쳐 郵便으로 質問紙를 配付하여 두차례 독촉을 한 結果 42 個 大學校에서 應答하여 回收率은 91%로 나타났는데 이들 質問紙中 內容이 不實한 2 個를 除外하고 나머지 40 個를 分析對象으로 삼았다.

3. 研究의 限界

本 研究의 限界는 다음과 같다.

① 敎養名著에 대한 實態를 보다 廣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調查對象範圍를 單科大學과 專門大學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하겠으나 規模가 작은 大學의 境遇는 敎養名著에 대한 問題點을 提示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本 研究에서는 이들을 除外시키고 46 個 綜合大學校만으로 局限하였다.

② 敎養名著의 基準과 原理까지 함께 調查되고 究明되어야 하겠으나 本 研究

4) 여석기, “대학생과 독서”, 大學의 理解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2), pp.111-112.

에서는 事實發見을 위한 調查·分析만으로 그쳤다.

II . 理論的 背景

1. 大學教育에 있어서 教養教育

大學教育의 目的은 學術 및 그 應用方法을 研究, 教授하는 專門的인 面과 指導의 人格陶冶를 위한 一般教養的인 面이 있다. 最近 高度産業社會에 있어서 人間性的의 喪失問題와 大學이 專門職에 必要한 特殊한 實用的 知識과 技能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批判下에 大學教育에 있어서 教養教育의 重要性에 대하여 많은 研究가 이루어 지고 있다.

大學의 役割은 ①學問의 研究와 教育 ②專門的 職業을 위한 教育 ③一般教養教育의 세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다. 이와 같은 세가지 役割中 가장 基本的이고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 一般教養教育이 아닌가 한다

大學에서 教養教育이란 專門的 職業的 特殊教育에 對應하는 말로서 個人的 幸福한 삶의 영위와 民主社會의 理想과 要求를 감당해 낼 수 있는 全人的 人格 이고도 基本的이며 普遍的인 民主市民으로서의 指導의 人格을 養成하는 廣義의 教育⁵⁾이라고 할 수 있겠다.

教養教育은 科學의 急速한 發展으로 인하여 學問研究가 專門化 細分化됨에 따라 大學에서의 教育이 專門職業教育에만 치중하게 됨에 따라 人間으로서의 教養的 資質 즉 人間性的의 부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現代社會에 있어서 學問研究를 하는 사람이나 指導者的 立場에 있는 사람에게 統合된 人格形成과 責任있는 市民으로서의 資質을 부여하는데 그 必要性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民主市民의 資質을 위한 多樣한 方面의 基礎的 教育으로서 個人的으로는 充分한 素質의 伸張과 풍요한 삶을 영위할 身體的 精神的 健康과 能力을 구비하고 社會的으로는 有能한 專門職業을 통하여 民主社會와 國家에 責任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고 奉任할 수 있는 폭넓고 융통성 있는 資質을 育成하는데 教養教育의 目標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⁶⁾

5) 李相魯, 李潤樹, “大學의 教養教育에 관한 調查研究”, 학생지도연구 (경북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제 2권, 제 1호(1969.3), p.46.

6) 金炳吉, “大學教養教育研究 序說: 그 意義와 重要性을 中心으로”, 論文集 (慶尙大學校), 第 13輯(1974), p.189.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大學에서의 教養教育은 專門教育의 바탕이며 人間의 一生을 통한 教養形成 곧 人間形成을 위한 教育으로서 重大한 意義가 있다 할 수 있겠다.

2. 教養教育과 教養名著 選定制度

教養教育은 教養人으로서 갖추어야 할 基本이 되고 共通이 되는 知識, 能力, 價値觀 等의 人格陶冶面과 專門教育의 對備教育 즉 基礎教育의 뜻이 있다. 따라서 教養教育이 專門教育의 効率化를 위한 基礎教育 만이 아니고 指導的 人格者로서의 資質을 위한 基礎教育의 兩面이 있다.⁷⁾

그러나 實際로 大學에서의 教養教育은 運營이 效率的으로 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批判을 받고 있다. 즉 教養教育은 專門教育의 수단이 아니라 그 自體로서의 完結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教養教育이 1.2學年에 배정되어 있는 教養科目의 履修 만으로 끝난다는 생각은 拂拭되어야 할 것이다.⁸⁾

이러한 觀點에서 各 大學에서는 보다 폭 넓은 教養教育의 確充을 위하여 正規 教養科目 以外에 教養講座, 教養세미나, 名著프로그램 (Great Books), 音樂感想과 解說 그리고 宗教系大學의 기도회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⁹⁾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名著프로그램 즉 教養名著 選定制度는 讀書가 教養에 미치는 至大한 影響을 생각할 때 매우 重要한 것이라 하겠다. 全人的 完成을 意味하는 教養이 비단 讀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더라도 教養은 知的, 學問的 面이 관심의 重點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教養을 섭취하는 方法은 역시 讀書가 으뜸이 된다고 할 수 있다.¹⁰⁾

教養이란 多方面의 知識과 經驗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大學生의 教養을 위한 讀書는 文化의 모든 面을 對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즉 局限되고 편과적인 讀書가 아닌 人文, 社會, 科學 等 모든 分野에 걸친 폭 넓은 讀書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7) 羅成實, “大學教育課程에 있어서 圖書館教育의 必要性에 관한 研究”, 未刊本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72, p.11.

8) 中央教育研究所, 大學教育內容에 관한 綜合的 研究: 大學教育課程에 관한 研究 (서울: 同研究所, 1967), p.101.

9) 上揭書, p.60.

10) 玄勝鍾, 申一 澈共編, 大學生과 讀書 (서울: 世界社, 1968), pp.22-24.

이렇게 볼 때 一般的으로 教養을 위하여 大學時節에 읽어야 할 圖書는 참으로 多方面이고 광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讀書를 즐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讀書의 量은 制限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目標과 系統을 세워서 自己의 能力과 木準에 맞는 良書를 選定한다는 것은 매우 重要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 大學에서는 專攻에 관계없이 大學生이면 누구나 읽어야 할 東西洋 先賢들의 著述 및 行績에 관한 古典의 著作들을 屢선 하여 이를 읽게 함으로서 그 名著속에 흐르고 있는 價値와 思考方式을 經驗할 수 있는 機會를 주고 있다.¹¹⁾ 이것이 바로 名著프로그램 즉 教養名著 選定制度인데 學生들의 體系的인 讀書指導를 위한 매우 고무적이고 적극적인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大學에서의 教養教育이 專門教育의 바탕으로서 뿐만 아니라 人間의 一生을 통한 教養形成 곧 人間形成을 위한 基礎教育으로서의 重大한 意義가 있다면 教養教育의 일환으로서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批判되고 取捨選擇되는 가운데서 그 絶對的인 價値가 客觀化된 古典들을 屢선하여 體系的으로 읽히기 위한 教養名著 選定制度는 그 自體 만으로도 教養을 完全에 가깝도록 높여 줄 수 있는 큰 意義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Ⅲ. 結果解釋 및 考察

1. 教養名著 選定制度

(1) 實施與否

各大學의 教養名著 選定制度 實施與否를 調査하여 본 結果는 <表1>과 같이

<表1> 教養名著 選定制度 實施與否

실시여부	응답수	%
실시하고 있다	16	40.0
실시하지 않는다	24	60.0
합 계	40	100.0

11) 中央教育研究所, 前掲書, p.61.

40 %인 16個 大學만이 實施하고 있었고, 60%인 24個 大學에서는 實施하지 않고 있었다. 教養名著 選定制度를 實施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表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必要性을 느끼고 있으나 미처 準備를 하지 못한 경우가 14個 大學으

<表 2> 教養名著 選定制度 未實施 理由

미 설 시 이 유	응 답 수	%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8	33.3
필요성은 느끼지만 준비를 하지 못하여	14	58.3
기 타	2	8.4
합 계	24	100.0

로 가장 많고, 8個 大學은 必要性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기타 2個 大學의 경우 한 大學은 教養課程에 教養圖書라는 科目을 教養必須로 開設하여 1학점으로 3학년까지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思想, 文藝, 藝術, 社會科學, 自然科學의 5편 모두 강의없이 시험으로 D급 이상의 成績을 취득한 후나 취득 예정학기에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在學期間中 3회의 應試機會를 주어 왔으나 1985學年度 부터는 폐지된 상태이며, 또 다른 한 大學은 學校新聞에 권장도서라는 題目으로 1회 20종 정도를 書評과 함께 1년에 여러차례 掲載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8個 大學이나 必要性 自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各大學의 實情이 각각 다르겠지만 大學 4年間 學生들이 基本的으로 讀書하여야 할 目錄을 提示하여 體系의이고 目的意識을 가진 讀書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名 稱

各大學의 教養名著 選定制度의 名稱을 調查하여 본 結果 <表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個 大學에서 使用하고 있는 名稱이 11가지로 아주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名稱을 살펴 보면 教養이라는 단어가 붙은 용어가 9個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必讀이라는 단어가 붙은 용어가 3개, 名著가 붙은 用語가 3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떠한 용어로든지 統一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表 3〉 教養名著 選定制度의 名稱

명 칭	응답수	%	명 칭	응답수	%
교양 도서	5	31.25	양 서	1	6.25
교양 백선	2	12.5	필독 도서	1	6.25
교양 적서	1	6.25	필독전전도서	1	6.25
교양 명저	1	6.25	전전 필독도서	1	6.25
명저 백선	1	6.25	추천 도서	1	6.25
명저 해제	1	6.25	합 계	16	100.0

(3) 制定年度

各大學의 教養名著를 언제 始作하였는가를 調査하여 본 結果는 〈表 4〉와 같

〈表 4〉 教養名著 制定年度

제 정 년 도	응답수	%	제 정 년 도	응답수	%
1954	1	6.25	1981	3	18.75
1974	2	12.5	1982	1	6.25
1975	1	6.25	1984	1	6.25
1977	1	6.25	1986	1	6.25
1978	1	6.25	모르겠다.	2	12.5
1979	2	12.5	합 계	16	100.0

이 1980年 以前에 制定한 大學은 8個 大學으로 50%이며, 1980年 以後에 制定한 大學은 6個 大學으로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2個 大學은 모르겠다 고 하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教養名著는 比較的 最近에 全人教育과 教育의 人間化가 強調됨과 아울러 讀書의 重要性이 高潮되어 制定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現在의 教養名著가 언제 作成된 것인가를 살펴 본 結果는 〈表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2年 以前에 作成한 것이 7個 大學으로 43.75%이며,

〈表5〉 現在の 敎養名著 制定年度

제 정 년 도	응 답 수	%	제 정 년 도	응 답 수	%
1975	1	6.25	1984	2	12.5
1979	2	12.5	1985	2	12.5
1980	1	6.25	1986	4	25.0
1981	1	6.25	모 르 겠 다	1	6.25
1982	2	12.5	합 계	16	100.0

1984년 以後에 作成한 境遇가 8個 大學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어 現在の 敎養名著 역시 最近에 作成된 것으로 나타났다.

(4) 形 態

敎養名著의 形態를 調査하여 본 結果 〈表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1個 大學인 68.75%가 解題없이 낱장의 目錄形態이며, 3個 大學은 冊子型 解題目錄, 2個 大學은 大學生活案内에 目錄을 수록하고 있었다.

〈表6〉 敎養名著의 形態

형 태	응 답 수	%
해 제 없이 낱장의 목록 형태	11	68.45
책자형 해제목록	3	18.75
대학생활안내 부록	2	12.5
합 계	16	100.0

敎養名著의 形態는 讀者들에게 그 圖書의 內容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讀書興味를 유발할 수 있겠끔 解題를 첨가한 冊子型 目錄이 좋을 것이다.

(5) 更新與否

敎養名著의 更新與否는 〈表7〉에 나타난 바와 같이 必要時 不定期的으로 更新하는 境遇가 9個 大學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更新한 적이 없는 境遇가 3個 大學, 2個 大學은 1年마다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7〉 教養名著 更新與否

갱 신 여 부	응 답 수	%
1년마다	2	12.5
2년마다	1	6.25
3년마다	1	6.25
필요시 부정기적으로	9	56.25
지금까지 갱신한 적이 없다	3	18.75
합 계	16	100.0

教養名著의 更新은 定期的으로 할것이 아니라 새로운 圖書를 추가하고 기존의 도서를 삭제할 必要가 있을때 수시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6) 教養名著의 選定

教養名著를 누가 選定하고 있는가를 調査하여 본 結果 〈表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教授가 41.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司書가 33.3%, 圖書館長이 16.7%, 기타 8.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는 教養教育委員會에서 選定하는 境遇와, 學生處에서 主觀하는 경우도 있었다.

〈表 8〉 教養名著의 選定

선 정	응 답 수	%
교 수	10	41.7
도 서 관 장	4	16.7
사 서	8	33.3
기 타	2	8.3
합 계	24 ¹²⁾	100.0

12) 16個 大學에서 1個 以上 應答한 것을 합한 숫자임.

敎養名著의 選定은 어느 特定人의 主觀이 개입될 것이 아니라 教授, 學生, 司書 等 가능한 한 各 分野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選定하는 것이 보편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7) 敎養名著의 選定種數

各大學의 敎養名著의 選定種數는 <表9>와 같이 100種을 選定한 大學이 4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20種, 124種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6個 大學에서 選定한 것을 모두 합하면 1939種인데 이것을 平均하여 본 結果

<表9> 敎養名著의 選定種數

종 수	응답수	%	종 수	응답수	%
90	1	6.25	124	2	12.5
97	1	6.25	136	1	6.25
100	4	25.0	138	1	6.25
114	1	6.25	155	1	6.25
120	2	12.5	200	1	6.25
121	1	6.25	합 계	16	100.0

121種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敎養名著를 몇 種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重要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學生들이 4년 동안 읽어야 할 基本的인 圖書를 選定하여 주는 것이므로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100種 内外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8) 敎養名著의 複本備置數

各大學에서 敎養名著로 選定한 圖書를 圖書館에서 몇권의 複本을 備置하고 있는가를 調査하여 본 結果 <表10>과 같이 5권을 備置하고 있는 大學이 6個 大學(37.5%)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3권, 2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타에는 一定한 基準이 없이 必要에 따라 가감하는 大學도 있으며, 20권으로 하는 大學도 있었다.

〈表 10〉 敎養名著의 複本備置數

복 본 수	응 답 수	%	복 본 수	응 답 수	%
2 권	2	12.5	10 권	1	6.25
3 권	2	12.5	기 타	5	31.25
5 권	6	37.5	합 계	16	100.0

複本數는 學生數, 利用率, 豫算 等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自館의 實情에 알맞게 備置하여야 할 것이다.

(9) 敎養名著의 利用率

敎養名著로 選定된 圖書가 다른 圖書에 비하여 利用率이 어떠한 가를 調査하여 본 結果 〈表 11〉과 같이 다른 圖書보다 敎養名著로 選定된 圖書가 利用

〈表 11〉 敎養名著의 利用率

이 용 율	응 답 수	%
이용율이 월등히 많다	2	12.5
이용율이 많은 편이다	10	62.5
이용율이 동등하다	4	25.0
합 계	16	100.0

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敎養名著는 學生들이 4년 동안 必須的으로 읽어야 할 圖書로 選定된 것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學生들이 人格形成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폭 넓은 讀書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讀書를 권장하여 利用率이 월등히 많아질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2. 敎養名著目錄

(1) 敎養名著目錄의 主題別 分析

敎養名著 選定制度를 實施하고 있는 各大學의 目錄을 主題別로 分析하여 보면 〈表 12〉와 같다.

〈表 12〉 教養名著 目錄의 主題別 分析

주 제 대 학	論 著 篇					文 學 篇						합 계
	인 문 과 학	사 회 과 학	자 연 과 학	예 술	계	시	희 곡	소 설	수 필	기 타	계	
1	22 (18.3)	28 (23.4)	8 (6.7)	1 (0.8)	59 (49.2)	3 (2.5)	4 (3.3)	47 (40.0)	4 (3.3)	2 (1.7)	61 (50.8)	120 (100.0)
2	47 (34.1)	51 (37.0)	22 (15.9)	7 (5.0)	127 (92.0)	1 (0.7)	1 (0.7)	6 (4.4)	3 (2.2)		11 (8.0)	138 (100.0)
3	18 (18.0)	21 (21.0)	3 (3.0)		42 (42.0)	3 (3.0)	3 (3.0)	46 (46.0)	6 (6.0)		58 (58.0)	100 (100.0)
4	24 (20.0)	23 (19.1)	6 (5.0)	2 (1.7)	55 (45.8)	5 (4.2)	3 (2.5)	54 (45.0)	3 (2.5)		65 (54.2)	120 (100.0)
5	46 (23.0)	61 (30.5)	17 (8.5)	12 (6.0)	136 (68.0)	5 (2.5)	1 (0.5)	51 (25.5)	7 (3.5)		64 (32.0)	200 (100.0)
6	24 (19.8)	40 (33.1)	22 (18.2)	3 (0.5)	89 (73.6)		1 (0.8)	28 (23.1)	3 (2.5)		32 (26.4)	121 (100.0)
7	23 (23.0)	28 (28.0)	4 (4.0)	3 (3.0)	58 (58.0)	5 (5.0)	4 (4.0)	29 (29.0)	4 (4.0)		42 (42.0)	100 (100.0)
8	19 (19.0)	20 (20.0)	4 (4.0)	3 (3.0)	46 (46.0)	5 (5.0)	1 (1.0)	36 (36.0)	12 (12.0)		54 (54.0)	100 (100.0)
9	39 (34.2)	25 (21.9)	5 (4.3)		69 (60.5)	1 (0.9)	2 (1.8)	40 (35.0)	2 (1.8)		45 (39.5)	114 (100.0)
10	34 (35.1)	18 (18.6)	11 (11.3)	13 (13.4)	76 (78.4)	2 (2.1)	1 (1.0)	17 (17.5)	1 (1.0)		21 (21.6)	97 (100.0)
11	24 (26.6)	34 (37.8)	7 (7.8)	2 (2.2)	67 (74.4)	1 (1.1)		19 (21.2)	3 (3.3)		23 (25.6)	90 (100.0)
12	48 (38.7)	43 (34.7)	2 (1.6)	6 (4.8)	99 (79.8)	4 (3.2)	1 (0.8)	14 (11.4)	6 (4.8)		25 (20.2)	124 (100.0)
13	53 (39.0)	40 (29.4)	4 (2.9)	6 (4.4)	103 (75.7)	5 (3.7)	1 (0.7)	19 (14.0)	8 (5.9)		33 (24.3)	136 (100.0)
14	40 (32.3)	50 (40.3)	14 (11.3)	5 (4.0)	109 (87.9)	1 (0.8)		2 (1.6)	12 (9.7)		15 (12.1)	124 (100.0)
15	67 (43.2)	33 (21.3)	5 (3.2)	1 (0.7)	106 (68.4)	5 (3.2)	4 (2.6)	35 (22.6)	5 (3.2)		49 (31.6)	155 (100.0)
16	26 (26.0)	12 (12.0)	7 (7.0)	13 (13.0)	58 (58.0)	2 (2.0)	1 (1.0)	37 (37.0)	2 (2.0)		42 (42.0)	100 (100.0)
합 계	554 (28.5)	517 (26.7)	151 (7.8)	77 (4.0)	1,299 (67.0)	48 (2.5)	28 (1.4)	480 (24.8)	81 (4.2)	2 (0.1)	640 (33.0)	1,939 (100.0)

〈表 12〉에 나타난 結果를 綜合的으로 살펴보면 論著는 全體의 67%, 文學은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文學이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중시하여 불 必要가 있다. 이것은 文學이 人間全體를 수용하여 말하고, 人間을 감동시키고, 심성을 올바르게 배양시키기 때문이다. 곧 文學은 다른 어떤 學問보다도 人間の 全人格에 關여하면서 그 本質을 수행해 나가기 때문이다.¹³⁾

13) 韓承玉, “教養教育과 文學”, 大學教育, 제 20 호 (1986.3), p.52.

論著中에는 人文科學이 28.5%, 社會科學이 26.7%, 自然科學이 7.8%, 藝術 및 기타가 4%를 차지하고 있으며, 文學中에는 小說이 24.8%, 수필이 4.2%, 詩가 2.5%, 희곡이 1.4%, 其他가 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全體的으로 볼 때 人文科學, 社會科學 및 小說에 많이 치중하여 名著를 選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各 大學別로 살펴 보면 論著篇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大學은 80% 以上の 비중을 두고 있는 2와 14를 들 수 있으며, 文學篇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大學은 50% 以上の 비중을 두고 있는 3, 4, 8 그리고 1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大學生을 위한 教養名著란 專攻에 관계없이 폭 넓은 分野의 圖書를 讀書함으로서 그 目的을 다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分野에 置重하기 보다는 모든 分野에 걸쳐 골고루 均衡있게 選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國內圖書와 翻譯圖書의 分析

各大學의 教養名著目録을 國內圖書와 外國圖書로 分析하여 보면 <表 13>과 같다.

<表 13> 教養名著目録의 國內圖書와 翻譯圖書의 分析

구 대 학	論 著 篇				文 學 篇				합 계
	韓 國	東 洋	西 洋	計	韓 國	東 洋	西 洋	計	
1	7 (5.9)	6 (5.0)	46 (38.3)	59 (49.2)	13 (10.8)	2 (1.7)	46 (38.3)	61 (50.8)	120 (100.0)
2	49 (35.5)	7 (5.1)	71 (51.4)	127 (92.0)	4 (2.9)		7 (5.1)	11 (8.0)	138 (100.0)
3	4 (4.0)	5 (5.0)	33 (33.0)	42 (42.0)	7 (7.0)	5 (5.0)	46 (46.0)	58 (58.0)	100 (100.0)
4	4 (3.3)	6 (5.0)	45 (37.5)	55 (45.8)	13 (10.8)	3 (2.5)	49 (40.9)	65 (54.2)	120 (100.0)
5	38 (19.0)	12 (6.0)	86 (43.0)	136 (68.0)	17 (8.5)	4 (2.0)	43 (21.5)	64 (32.0)	200 (100.0)
6	25 (20.7)	7 (5.8)	57 (47.1)	89 (73.6)	15 (12.4)	3 (2.5)	14 (11.5)	32 (26.4)	121 (100.0)
7	10 (10.0)	12 (12.0)	36 (36.0)	58 (58.0)	11 (11.0)	3 (3.0)	28 (28.0)	42 (42.0)	100 (100.0)
8	10 (10.0)	4 (4.0)	32 (32.0)	46 (46.0)	15 (15.0)	1 (1.0)	38 (38.0)	54 (54.0)	100 (100.0)
9	4 (3.5)	8 (7.0)	57 (50.0)	69 (60.5)	5 (4.4)	3 (2.6)	37 (32.5)	45 (39.5)	114 (100.0)

10	25 (25.8)	2 (2.1)	49 (50.5)	76 (78.4)	10 (10.3)		11 (11.3)	21 (21.6)	97 (100.0)
11	17 (18.9)	6 (6.7)	44 (48.8)	67 (74.4)	8 (8.9)	1 (1.1)	14 (15.6)	23 (25.6)	90 (100.0)
12	29 (23.4)	7 (5.6)	63 (50.8)	99 (79.8)	9 (7.3)		16 (12.9)	25 (20.2)	124 (100.0)
13	27 (19.8)	8 (5.9)	68 (50.0)	103 (75.7)	11 (8.1)		22 (16.2)	33 (24.3)	136 (100.0)
14	61 (49.2)	6 (4.8)	42 (33.9)	109 (87.9)	8 (6.5)		7 (5.6)	15 (12.1)	124 (100.0)
15	17 (11.0)	11 (7.1)	78 (50.3)	106 (68.4)	4 (2.6)	4 (2.6)	41 (26.4)	49 (31.6)	155 (100.0)
16	8 (8.0)	2 (2.0)	48 (48.0)	58 (58.0)	5 (5.0)	1 (1.0)	36 (36.0)	42 (42.0)	100 (100.0)
합 계	335 (17.3)	109 (5.6)	855 (44.1)	1299 (67.0)	155 (8.0)	30 (1.5)	455 (23.5)	640 (33.0)	1939 (100.0)

〈表 13〉에 나타난 結果를 綜合的으로 살펴 보면 論著篇中에서는 西洋의 것이 44.1%, 韓國의 것이 17.3%, 韓國을 除外한 東洋의 것이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文學篇中에서는 西洋文學이 23.5%, 韓國文學이 8%, 韓國을 除外한 東洋文學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各大學別로 살펴 보면 論著篇中 韓國의 論著에 두고 있는 비중이 제일 높은 大學은 30% 이상이 되는 14와 2를 들 수 있으며, 東洋의 論著의 境遇는 12%의 비중을 두고 있는 7을 들 수 있고, 西洋의 論著의 境遇는 50% 이상의 비중을 두고 있는 2, 9, 10, 12, 13 그리고 15를 들 수 있다. 文學篇中 韓國文學에 두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大學은 15%의 비중을 두고 있는 8을 들 수 있으며, 東洋文學의 境遇는 5%인 3을 들 수 있고, 西洋文學의 境遇는 40% 이상이 되는 3과 4를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은 統計를 놓고 볼때 西洋의 論著篇과 外國文學에 치우쳐 있으나 많은 大學에서 韓國의 論著 및 文學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教養名著目錄은 中·高等學校를 거처온 大學生들을 위한 目錄이므로 韓國의 文學과 論著보다도 世界 여러나라의 作品을 學生들이 읽도록 하여 넓고 깊은 世界觀과 폭 넓은 生活經驗을 갖게 하여 自身의 人生觀을 더욱 더 健全하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指定頻度別 分析

各大學에서 選定한 名著 總 1939種 가운데 중복된 書名을 除外하면 952種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指定頻度에 따라 分析하여 보면 <表 14>와 같다.

<表 14> 教養名著目錄의 指定頻度別 分析

指 定 學 校 數	種 數	%
1 個 大 學	621	65.4
2 " "	128	13.4
3 " "	63	6.6
4 " "	45	4.7
5 " "	24	2.5
6 " "	25	2.6
7 " "	7	0.7
8 " "	10	1.1
9 " "	8	0.8
10 " "	11	1.2
11 " "	8	0.8
12 " "	2	0.2
합 계	952	100.0

<表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복되지 않은 952種 중에서 65.4%에 해당하는 621種이 단지 1個 大學에서만 選定한 것이며 16個 大學中 반이상 즉 8個 大學 以上에서 指定하고 있는 書名은 全體 952種 중에서 불과 4.1%에 해당하는 39種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全體 16個 大學에서 모두 選定하고 있는 圖書는 한 種도 없었다. 이와 같이 各大學의 名著選定은 상당히 分散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著者의 作品을 選定하더라도 大學에 따라서 각기 다른 作品을 選定하는 境遇가 있으며, 또 境遇에 따라서 어떤 한 分野에 만 치중하여 選定하는 大學도 있었다.

各大學에서 選定하고 있는 名著中에서 4個 大學 以上에서 指定하고 있는 140種을 指定頻度에 따라 指定大學數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배열하여 보면 <表 15>

와 같다.

〈表 15〉 4個大學 以上에서 指定한 名著 140種

一連番號	著者	著名	指定大學數	備考
1	피테, J.W	파우스트	12	
2	다윈, C.	種의 起源	12	
3	까뮈, A.	異邦人	11	
4	단테	神曲	11	
5	말로, A.	人間의 條件	11	
6	몽테뉴, M.	隨想錄	11	
7	스탕달, H	赤과 黑	11	
8	일 연	三國遺事	11	
9	카아, E.	歷史란 무엇인가?	11	
10	프롬, E.	自由로 부터의 逃避	11	
11	공자	論語	10	
12	도스토예프스키, F.	罪와 罰	10	
13	리즈멘, D.	고독한 군중	10	
14	마키아벨리, N.	君主論	10	
15	몽테스키외	法の 精神	10	
16	손문	三民主義	10	
17	정약용	목민심서	10	
18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10	
19	파스칼	광세	10	
20	플라톤	國家論	10	
21	호머, H.	일리어드·오딧세이	10	
22	니체, F.	저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9	
23	듀이, J.	民主主義와 教育	9	
24	듀런트, W.	철학 이야기	9	
25	루소, J.	사회계약론	9	
26	루소, J.	에밀	9	

一連 番號	著者	書名	指 定 大 學 數	備 考
27	단, J.	魔의 山	9	
28	세익스피어, W.	햄릿	9	
29	토인비	歷史의 研究	9	
30	릿셀	서양 철학사	8	
31	모어, T.	유토피어	8	
32	밀, J. S.	自由論	8	
33	밀튼	실락원	8	
34	박종홍	한국 사상사	8	
35	사르트르, J.	嘔吐	8	
36		聖書	8	
37	세르반테스, M.	돈키호테	8	
38	웨버, M.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8	
39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8	
40	朴殷植	韓國痛史	7	
41	벨빌, H.	白鯨	7	
42	오글, L.	生命의 起源	7	
43	위고	레미제라블	7	
44	엘리어트, T. S.	황무지	7	
45	피히테, J.	獨逸國民에게 告함	7	
46	洪自誠	菜根譚	7	
47	가모브, G.	未知의 世界로의 旅行	6	
48	가모브, G.	物理學을 뒤흔든 30年	6	
49	가모브, G.	우주의 창조	6	
50	羅貫中	三國志	6	
51	모노, J.	偶然과 必然	6	
52	멜더스	人口論	6	
53	보들레에르, C.	惡의 꽃	6	
54	보카치오	데카메론	6	

一連 番號	著 者	書 名	指 定 大學數	備 考
55	브린트, C.	현대사상의 형성	6	
56	司馬遷	史 記	6	
57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王	6	
58	스미스, A.	국부론	6	
59	아우구스티누스	告 白	6	
60	柳成龍	懲忿錄	6	
61	李光洙	無 情	6	
62	莊 周	莊 子	6	
63	조이스, J.	울리시이즈	6	
64	지이드, A.	좁은 門	6	
65		春香傳	6	
66	칸트, I.	純粹理性排判	6	
67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6	
68	토블리, A.	未來의 衝擊	6	
69	프루스트, M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6	
70	플로베르, G.	보마리 부인	6	
71	호오돈	주홍글씨	6	
72	간디, M.K.	眞實을 찾아서	5	
73	김 구	백범일지	5	
74	金富軾	三國史記	5	
75	도스토예프스키, F.	카라마조프家の 兄弟들	5	
76	도슨, C.	歷史의 原動力	5	
77	로렌스, D.	아들과 연인	5	
78	리이드, H.	예술이란 무엇인가	5	
79	랄케, R.	말테의 手記	5	
80	朴趾源	熱河日記	5	
81	번스틴, J.	아인슈타인 I. II.	5	
82	슈미트, G.	近代繪畫小史	5	

一連番號	著者	書名	指定大學數	備考
83	생똥쥐베리	인간의 대지	5	
84	아리스토텔레스	詩學	5	
85	梁啓超	中國古典入門	5	
86	一卓永振	量子力學的 世界像	5	
87	林語堂	生活의 發見	5	
88	입센, H.	人形의 집	5	
89	톨스토이	人生論	5	
90	파스테르나크, B.	의사지바코	5	
91	포오코너, W.	음향과 분노	5	
92	프로이드, S.	꿈의 해석	5	
93	플라톤	향연	5	
94	플루다크	플루다크 영웅전	5	
95	하이데커	존재와 시간	5	
96	金萬重	九雲夢	4	
97	김열규	한국의 신화	4	
98	김주현	현대사회와 소외	4	
99	노 자	도 덕 경	4	
100	魯迅	阿Q正傳	4	
101		唐詩	4	
102	데카르트, R.	方法叙說	4	
103	러셀, B.	宗教와 科學	4	
104		로마제국 쇠퇴론	4	
105	로스토프체프	그리스 로마 신화	4	
106	마스다니	불교개론	4	
107	모건, L. H.	고대사회	4	
108	모파상, G.	女子의 一生	4	
109	文一平	韓國의 文化	4	
110	미르달	빈곤의 도전	4	
111	밀, C. W.	社會學的 想像力	4	
112	번안	천로역정	4	
113	보이치우스	철학의 위안	4	
114	브론테, E.	폭풍의 언덕	4	

一連番號	著者	書名	指 定 大 學 數	備 考
115	스노우, C.P.	두 문화와 과학문명	4	
116	스피노자	倫理學	4	
117	施耐庵	수호지	4	
118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	4	
119	야스페르스, K.	소크라테스·불타·공자·예수	4	
120	야스페르스, K.	대학의 이념	4	
121	오웰, G.	1984年	4	
122	오 천 석	스 승	4	
123	왓슨, J.	二重螺旋	4	
124	이 기 백	民族과 歷史	4	
125	이 기 백	韓國史新論	4	
126	李 相 殷	退溪의 생애와 學問	4	
127	이 어 령	古典의 바다	4	
128	이 이	을 곡 집	4	
129	애 슈 비, E.	과학기술의 혁명과 대학	4	
130	칸 트	실천이상 비판	4	
131	토 플 러, A.	제 3의 물결	4	
132	트웨인, 마크	허클베리핀의 모험	4	
133	프로이트, S.	문화와 그 불만	4	
134	프롬, E.	환상의 사슬을 넘어서	4	
135	프랭클, V.	죽음의 수용소에서	4	
136	韓 龍 雲	님의 침묵	4	
137	화이트헤드, A.N.	과학과 근대세계	4	
138	헤밍웨이, E.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4	
139	헷세, H.	데미안	4	
140	헷세, H.	知와 사랑	4	

3. 教養名著 選定制度에 대한 意見

各大學에서 陳述한 教養名著 選定制度에 대한 意見을 類似한 것끼리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時代의 흐름과 思潮의 變遷에 따라서 적절한 教養名著를 選定할 必要性

이 있다.

② 教養名著의 選定時 일부 특정인의 主觀이 개입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으며 選定基準이 애매 모호하여 選定에 어려움이 있어 基準이 確立되어야 하겠다.

③ 教養名著는 各 分野別 專門家를 위촉하여 엄격하게 選定하여 體系化하는 方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④ 教養名著의 管理와 運用 및 維持 等に 必要한 特別 管理室과 利用案内를 비롯한 奉仕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必要가 있다.

⑤ 教養名著는 複本基準을 다르게 適用하여 많은 수의 複本이 必要하다.

⑥ 教養名著는 解題를 發刊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利用을 增大시켜야 하겠다.

⑦ 國家(例: 國立中央圖書館)에서 教養名著에 대한 目錄과 解題를 2~3백 종 정도 發刊하여 이 중에서 各大學의 特性대로 다시 選定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⑧ 教養名著는 學點과 연계시켜서 運用하였으면 좋겠다.

Ⅳ. 要約 및 結論

지금까지 全國의 46個 綜合大學校를 對象으로 教養名著 選定制度에 대한 實態를 調査하고 分析하여 보았다.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大學教育을 크게 專門人の 養成을 위한 學術研究 및 應用方法의 專門教育和 人格陶冶를 위한 教養教育으로 나눌 수 있다. 大學生이 장차 各分野의 專門人으로서 또 指導의 立場에 있는 人格者로서의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次元에서 폭 넓은 教養과 깊이 있는 思考力을 키우는데 重點을 두어야 하겠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知的, 社會的, 情緒的 成熟的 完成을 이루는 大學時節에 보다 폭 넓은 人格形成과 專門人으로서 갖추어야 할 一般教養의 基礎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專門書籍 뿐만 아니라 一般教養圖書에 관한 讀書도 적극 장려되고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本 研究의 調査 및 分析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教養名著 選定制度는 40%인 16個 大學만이 實施하고 있었으며, 60%인

24 個 大學은 必要性은 느끼지만 아직 準備를 하지 못하거나 必要性 自體를 느끼지 못하여 實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各大學의 敎養名著의 名稱은 16 個 大學에서 11 가지로 아주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敎養이라는 단어가 붙은 용어가 9 개로 가장 많았다. 多樣하게 使用하고 있는 用語를 統一시켜야 할 必要가 있다 하겠다.

③ 敎養名著의 制定年度는 比較的 最近에 全人敎育과 敎育의 人間化가 強調됨과 아울러 讀書의 重要性이 고조되면서 부터 制定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敎養名著의 形態는 解題없이 낱장의 目錄形態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讀者들에게 그 圖書의 內容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讀書興味를 유발할 수 있겠끔 解題를 첨가한 冊子型 目錄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⑤ 敎養名著의 更新與否는 必要時 不定期的으로 更新하는 境遇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에 完全한 目錄을 制定할 수 없으므로 必要時 不定期的으로 更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⑥ 敎養名著는 敎授가 選定하는 境遇가 41.7%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司書, 圖書館長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選定은 어느 特定人의 主觀에 따를것이 아니라 各分野의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選定하여야 하겠다.

⑦ 敎養名著의 選定種數는 平均 121 種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소기의 成果를 거두기가 어려우므로 100 種 內外가 適當할 것 같다.

⑧ 敎養名著로 選定된 圖書의 備置複本數는 5 卷을 備置하는 大學이 6 個 大學(37.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데, 學生數, 利用率, 豫算 等の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各大學의 實情에 알맞게 備置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⑨ 敎養名著의 利用率은 다른 圖書보다도 상당히 많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와 讀書를 권장하여 많은 學生들이 利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⑩ 敎養名著目錄을 主題別로 分析하여 본 結果 人文科學, 社會科學 그리고 小說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文學이 全體의 33%를 차지하고 있었다.

⑪ 國內圖書와 翻譯圖書의 分析結果는 西洋의 論著와 西洋文學에 많은 비중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⑫ 指定頻度別 分析의 結果는 各大學이 選定해 놓은 種複되지 않은 952 種中에서 오직 1個 大學에서만 選定하고 있는 것이 65.4%에 해당하는 621 種이며, 8個 大學 以上에서 同時에 指定하고 있는 것은 4.1%에 해당하는 39 種 뿐이며, 16個 大學 全體에서 指定하고 있는 것은 한 種도 없이 지나치게 分散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參 考 文 獻

脚註로 代身함.

A System of Liberal Great Books Selection

- on the universities -

Byun, Woo-Yeouil*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system of liberal great books selection in universities of Korea.

A questionnaire consisted of 14 questions was sent to 46 universities of which 42 universities responded.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Liberal great books selection system was operated 40% of universities, but 60% was not operated because of not preparation and without perception of necessity.
- 2) The name of liberal great books was varied in 11 kinds of 16 universities. It is desirable that the name is unified.
- 3) The founded year of liberal great books selection system was new comparatively with enhanced liberal education.
- 4) The greater part of liberal great books format were a leaf of catalog, but it is desirable that book form catalog with review for induction of reading interests.
- 5) It is desirable that renewal of liberal great books are irregularly in answer to a need.
- 6) It is appeared that selection of liberal great books were by professor, but it is desirable that selection is by many people of all parts without prejudices and subjectivity.
- 7) The title of liberal great books were 121 titles in average. It is desirable that the titles are about 100 titles for expected results.

*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kongju National Teachers College.

28 도서관학논집

- 8) In a duplicates of liberal great books, 5 copy is much more than other cases. It is desirable that the duplicates depend on students, use rates, budget etc. of universities.
- 9) Use rates of liberal great books are much more than other books, but it is necessary that public relations and stimulation of reading for most use.
- 10) In subject analysis, liberal great books consisted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novel mainly. Specially, literature is 33% of the total.
- 11) Liberal great books consisted of occidental works and literature mainly.
- 12) It is appeared that analysis of appointment frequency was scattered exceedingly.